

금호타이어 노사 상생방안 마련 시급

광주시의회, 성명서 발표 ... 정부·채권단에 특단의 지원방안 실행 촉구

광주시의회가 금호타이어 노사의 상생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 지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3월11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원만한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루고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정부와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파국이 광주경제와 국가 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점을 감안해 특단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외부세력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노사갈등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11>